10.15686/fkl.2024..63.270

펄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

박진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1 모국으로 망명한 이야기꾼
2 낯선 목소리의 도래
3 순혈의 가족주의 강박
4 아시아 여성과 혼혈의 발견
5 펄 벅의 오독 혹은 모순

국문초록

펄 벅의 소설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번역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펄 벅은 아시아 여성의 인종 간 결혼과 혼혈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 문제를 처음 다룬 소설에서 펄 벅은 동서양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역설했다. 펄 벅은 한국의 역사와 아메라시안 입양을 주제로 삼은 소설에서 순혈주의와 가부장적 시각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펄 벅의 태도는 전후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아시아 여성과 혼혈을 역사적 시선으로 포착한 소설에서 펄 벅은 여성의 독립적인 내면과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일본인 여성의 사랑과 결혼, 인도의 선교사 일가, 중국의 유대인 사회를 재현한 소설에서 펄 벅은 자기 삶과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여성을 그렸다. 인종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여성과 혼혈에 관한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펄 벅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서사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한국 독자들은 휴머니즘이나 모성애가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랑과 가치관을 제시한 펄 벅의 문학적 실천에 공명했다.

국문핵심어: 가부장주의, 번역, 여성, 인종 간 결혼, 혼혈, 아메라시안, 아시아

1 모국으로 망명한 이야기꾼

펄 벅(Pearl S. Buck)은 서로 다른 "여러 세계"에 속하면서 경계 너머에 닿지 않는 타자의 목소리를 재현한 실천적인 여성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다.[1] 미국 남부 백인 중산층이자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펄 벅은 청나라 멸망, 민국 수립과 신문화운동, 북벌 전쟁과 일본의 침공으로 이어진 격동의 아시아에서 중국어를 모어로 삼아 한평생의 절반을 지냈다. 중국에서 싸이전주(賽珍珠), 한국에서는 박진주

1 "여러 세계"는 펄 벅이 자서전 제명으로 붙인 말이다. Pearl Buck,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Y.: The John Day Company, 1954.

(朴珍珠)라는 이름을 얻었다. 펄 벅의 부모는 중국 땅에 묻혔으며, 펄 벅은 자신의 묘비명을 싸이전주로 정했다. 나머지 절반의 인생은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과 혼혈아를 위해 전투적으로 쓰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데 바쳤다. 분열된 "여러 세계"는 대화를 나누거나 화해하지 않았으며, 2차대전 후에도 펄 벅은 여전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또 하나의 모어로 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펄 벅은 왕성한 필력과 생산성을 자랑한 다작의 작가인데, 초기 대표작으로 이미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아직 중국을 떠나기 전에 출간된『대지』(1931)는 곧바로 퓰리처상(1932)과 윌리엄 딘 하우얼스 메달(1935)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속편『아들들』(1932)과『분열된 일가』(1935)가 이어져 3부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사이 또 다른 대표작『어머니』(1934)를 발표하고, 단편소설로 오 헨리 상(1933, 1934, 1943)을 잇달아 거머쥐었다. 또 진성탄(金聖嘆)이 정리한 스나이안(施耐庵)의 70회본『수호전』을 옮긴『모든 사람은 형제다』(1933)를 내놓기도 했다.[2]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대지〉(1937)가 영화화되고 노벨문학상(1938)을 수상하면서 펄 벅을 향한 갈채는 절정에 달했다.

대중적인 인기나 명성과 달리, 또는 노벨문학상의 영예에도 불구하고 펄 벅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리만큼 인색했다. 펄 벅은 비유럽 출신의 이혼 여성이며, 주류 문단이나 평론계와 아무런 접점을 갖지 않은 무명의 늦깎이 작가였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성장하면서 아시아인의 삶과 운명을 그린 이방인이요 기독교 선교 사업과의 불화도 역력했다. 펄 벅의 "여러 세계"는 전전(戰前) 못지않게 전후(戰後)에도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은 끊임없이 펄 벅의 사상을 의심했으며, 중국은 일관성 있게 펄 벅을 매도했다. 미국에서 펄 벅을 진지하게 다루거나 문학사에서 언급하는 일은 없었으며, 중국도 펄 벅을 환영하지 않았다.[3] 이유나 양상은 다를지언정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펄 벅은 공산당을 경계한 것 이상으로 국민당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고

2 Pearl Buck, *All Men are Brothers (Shuihu Chuan)*, N.Y.: The John Day Company, 1933.『논어』「안연(顔淵) 편」에 나오는 "사해지내(四海之內) 개형제야(皆兄弟也)"에서 따온 표제다. 피터 콘, 이한음 역,『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239-240쪽.

3 피터 콘, 이한음 역, 위의 책, 344-347쪽 · 387-389쪽 · 421-422쪽 · 478-479쪽 · 583-586쪽.

줄기차게 비판했으며, 패전과 점령의 기억을 지닌 일본에서도 항일을 부르짖고 혼혈아 문제를 건드린 달갑지 않은 작가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어떠했을까? 1930년대 펄 벅은 린위탕(林語堂)과 나란히 동시대 중국의 역사적 현실과 중국인의 목소리를 타자의 언어로 드러낸 희귀한 작가이자 동아시아 가족사 소설의 상상력을 자극한 기념비적 모델로 떠올랐다. 특히 펄 벅은 최하층 농민과 여성의 운명에 주목한 점에서 시대적 · 계급적 · 젠더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4] 그런데 1950년대 대중적 독서와 출판 시장에서 펄 벅과 린위탕이 뚜렷한 불연속성을 띠며 상반된 방향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린위탕이 소설가라기보다 동서 문명을 통찰하는 세계적 지성이자 명수필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데 반해 펄 벅 소설이 지닌 민중적 가치는 보편적 휴머니즘과 모성애로 완전히 대체되었다.[5]

펄 벅은 여성 독서계를 평정한 가장 중요한 스타로 급부상했다. 펄 벅은 1950~196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일 뿐 아니라 단일 작가 선집이 출간된 최초의 여성 작가다.[6] 1960년 펄 벅의 첫 번째 방한과 거의 동시에 기념 문집이 상재되고,[7] 대표작과 자서전을 망라한 전 15권의 선집이 출간되기 시작하면

---

4 朴珍英,「家族史の東アジア的想像と飜譯: パ-ル · バックと林語堂の小說の韓國語への飜譯經緯」,『朝鮮學報』第239號, 天理: 朝鮮學會, 2016, 10-16쪽; Park Jinyoung, "East Asian Unconscious of Translation and World Litera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9 (2),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pp.230-232; 박진영,『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519-526쪽.

5 박진영, 위의 책, 535-537쪽. 한국에서 린위탕 번역과 수용이 지닌 역사성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고찰한 성과는 왕캉닝,『린위탕과 한국: 냉전기 중국 문화 · 지식의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 소명출판, 2022.

6 김병철,『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상, 을유문화사, 1998, 22-23쪽 · 61-63쪽 · 187-191쪽 · 248-253쪽. 단일 작가의 선집이 출간된 것은 앙드레 지드(전 5권, 영웅출판사, 1953~1954), 모리스 르블랑(전 5권, 삼중당, 1954), 헤르만 헤세(전 6권, 영웅출판사, 1954~1955)를 먼저 꼽아야 하지만 규모와 수준 양면에서 펄 벅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 작가로 뒤를 이은 루이제 린저(전 10권, 범우사, 1975)도 방한을 계기로 붐이 일어나고 선집이 출간되었다.

7 장왕록 · 한말숙,『대지의 신화: 펄 벅의 인간과 예술』, 신구문화사, 1960. "노벨 수상 작가 평전" 제1권으로 기획된 이 책은 실제로는 펄 벅 방한에 맞추어 펄 벅의 생애와 작품 세계, 펄 벅의 평론과 강연 요지, 신문 기사와 회고 등으로 편성되었다. 제1부 "펄 벅의 인간

서 펄 벅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완결되다시피 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펄 벅의 문학적 대장정과 열정적인 실천 운동 편력에 비추어 보자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여성계의 펄 벅 재발견과 1960년대 수차례에 걸친 방한을 둘러싼 전유를 가로지르며 급격한 단절이 일어난 사실도 엄연하다.[8] 이를테면 2차대전 중인 1940년대 펄 벅의 과감한 정치적 발언과 국제 문제에 관한 개입이 소거되고,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항일과 반전 주제의 소설이 더 이상 독자의 눈길을 끌지 못한 채 누락된 데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를 풍미한 펄 벅 번역과 편향적 열기는 펄벅재단 한국지부(1965, 현 한국펄벅재단)와 소사희망원(1967) 설립, 그리고 한국을 주제로 삼은 장편소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1963)와 『새해』(1968)로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어머니" 펄 벅을 향한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막상 학계에서 펄 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에 연구가 일천한 형편은 별다르지 않다. 펄 벅 번역과 수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바 없고, 펄 벅 애독과 열풍이 가린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 『대지』를 비롯한 대표작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한국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한국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소설조차 면밀히 연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기실 대중적인 호응과 인기를 넘어선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셈이며, 일방적인 찬사나 환호 말고는 문학사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9] 인종, 지역, 종교, 계급, 성별의 차별에 맞선

과 예술"은 쓰루미 가즈코(鶴見和子)의 『펄 벅(パール・バック)』(巖波書店, 1953)을 체재 그대로 축약한 것으로 한말숙이 번역했다. 장왕록이 편집한 제2~4부는 당시 영문학계, 여성계, 언론계의 반응을 포괄했다.

8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쪽;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58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35-457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24-236쪽.

9 펄 벅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임선애, 「서구 작가의 한국 쓰기: 펄 벅의 『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 『한국사상과 문화』 제45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81-106쪽; 류진희, 위의 논문, 2012, 181-204쪽; 김윤경, 위의 논문, 2013, 435-457쪽; 류진희, 위의 논문, 2015, 224-236쪽; 박진영, 앞의 책, 2019, 507-537쪽; 양아람, 「1960년대 펄 벅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대지』의 작가,

펄 벅의 분투와 약자를 위한 민주주의적 지향이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한국에서 번역된 공과를 신중하게 숙고할 가치가 있다.

먼저 1950년대 펄 벅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펄 벅이 집중적으로 번역된 현상을 통해 전후 한국인에게 포착된 펄 벅의 면면을 차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특히 한국, 일본, 인도, 중국 여성을 재현하면서 펄 벅 특유의 혼혈 인식을 드러낸 소설에 초점을 맞추자.[10] 펄 벅은 첫 번째 소설『동풍 서풍』(1930)부터 인종 간 결혼과 혼혈 문제에 관해 도전적인 시각을 제기해 왔다. 펄 벅의 일관된 관심사이자 핵심 주제로 꼽을 수 있는 혼혈 문제는 제국주의와 인종 차별에 대한 강경한 투쟁, 배타적 선교에 대한 격렬한 비판,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관통할 뿐 아니라 전후 코즈모폴리턴의 사랑과 결혼, 가족과 시민의 실천적인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색다른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그러나 펄 벅의 계몽적 목소리가 종종 불협화음을 내곤 하는 까닭이 기묘한 가부장적 욕망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낯선 목소리의 도래

펄 벅이 본격적으로 번역된 출발점을 짚어 두기 위해 〈표 1〉부터 살펴보자. 펄 벅이 난징에서 창작하고 뉴욕에서 출간한 두 번째 장편소설이자 대표작『대지』는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거나 읽히지 않은 시대란 없다.

혼혈아의 어머니」,『대동문화연구』제11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23-464쪽; 허정애,「펄 벅과 혼종 우월성:『숨은 꽃』과『새해』에 재현된 '아메라시안'을 중심으로」,『영미어문학』제138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20, 85-110쪽.

10 펄 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역시 아시아 여성과 혼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최근에 임선애, 양아람, 허정애, 김윤경의 연구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임선애는 펄 벅의 한국과 한국인 재현이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에 갇혀 있음을 분석했다. 양아람은 1960년대 일본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펄 벅의 방일과 일본 및 일본인 인식을 고찰했다. 허정애는 펄 벅 소설에 나타난 선구적인 혼종 담론이 지닌 의의를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펄 벅 수용 과정에 개입된 가부장적 여성상과 미국 표상을 비판한 김윤경의 연구가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인 1936년 심훈은『대지』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채고 니이타루(新居格)의 일본어판 중역을 통해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번역가의 급서로 초반부에 연재가 중단되었다. 1940년 노자영과 김성칠에 의해 상이한 번역이 단행본으로 각각 출간되었다. 대중 작가로 널리 알려진 노자영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축약된『대지』를 선보였는데, 초기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뚜렷이 보여주는 또 다른 걸작『어머니』를 나란히 소개해서 중요하다. 농촌 문제 전문가이자 훗날의 국학자 김성칠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영어 원작을 바탕으로『대지』완역에 성공했다. 김성칠의 번역은 사후인 한국전쟁 뒤에도 그대로 재출간되어 1980년대 초까지 40여 년간 10여 군데 출판사를 거치며 간단없이 읽혔다.[11]

『대지』3부작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각각 조상원과 장왕록에 의해 완역되었다. 현암사를 설립한 출판인 조상원은 일본어 중역에 의존하되 거작의 부담을 무릅쓰며 3부작을 처음 완역했다.[12] 조상원의 값진 공적이 훗날까지 기억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영문학자 장왕록은 1950년대 초부터 펄 벅과 교유하며 적극적으로 번역에 나서 오래도록 펄 벅 소개와 번역에서 권위를 얻었다. 장왕록은 1960년 펄 벅 기념 문집 출간을 주도하고, 여원사와 조선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성사된 펄 벅의 첫 번째 방한에 기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상원과 장왕록의 선구적인 번역 이래『대지』3부작은 여러 차례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세계문학전집이나 각종 선집에 거듭 포함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김성칠의『대지』가 재출간된 1953년부터 조상원과 장왕록의『대지』3부작이 완역될 때까지, 엄격히 따지자면 삼중당에서 첫 번째 작가 선집을 완간한 1962년까지 가히 펄 벅의 시대라 일컬을 만하다. 미국소설 번역이 1950년대에 급증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중에서도 펄 벅은 압도적인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표 2〉에서 정리한바 꼭 10년 동안 출간된 단행본 가짓수는 중복되거나 재출간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편소설 35권, 단편집 2권, 평론집과 자서전 각 1권, 펄 벅 걸작 선집 15권 등 총 54권이다. 펄 벅의 원작으로는 단편소설을 제외하고 23종이 번역되었는데, 그중 전전의 작품은 8종에 불과하

11 박진영, 앞의 책, 519-525쪽.

12 조상원은 제2부를 먼저 번역했으며, 산둥 출신의 중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다. 삼중당 선집에 5종이 새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면 총 28종이다. 그 무렵까지 펄 벅이 발표한 작품 가운데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번역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장편소설로는 고작 4편이 빠졌을 뿐이기 때문이다.[13]

펄 벅 번역의 정점으로 꼽을 수 있는 삼중당 선집에 대해서도 앞질러 살펴두자. 이미 언급했다시피 삼중당의 "펄 벅 걸작 선집"은 본격적인 규모의 단일 작가 선집으로는 효시나 다름없으며, 여성 작가 선집으로서도 단연 최초이자 독보적이다. 〈표 3〉의 삼중당 선집은 1960년부터 체재를 갖추기 시작해 두세 차례 일부 표제와 순서를 달리 편성하다가 1962년 말 최종적으로 완간되었다. 장왕록의 『대지』 3부작을 필두로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총 24편을 추려 전 15권에 담은 "펄 벅 걸작 선집"은 주요 작품을 편향 없이 망라해 펄 벅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성공적인 모델이다. 명망 있는 번역가가 몇몇 작품을 재번역하는가 하면 처음 소개하는 작품을 포함했으니 1950년대 펄 벅 번역의 결정판으로 손색이 없다.

실제로 삼중당 선집 이래 1980년대까지 총 8종의 펄 벅 선집이 "전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꾸준히 출간되었다. 그러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경우든 삼중당 "펄 벅 걸작 선집"의 규모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진작 소개된 작품을 중복하여 번역하거나 대표작만 추려 재출간을 되풀이했을 따름이다. 새로 포함된 작품은 그사이 출간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더 이상 참신함이나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펄 벅에 대한 애호와 영향력은 1980년대까지 사그라지지 않았으되 1950년대 번역과 삼중당 선집의 성취에 빚진 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펄 벅 번역은 대체로 한국전쟁 직후 처음 등장한 세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번역가이자 최대 공로자는 1924년생 장왕록이다. 김성칠과 조상원이 1913년생이니 10년 차이에 불과하지만 1920년대생은 해방 후 영문학을 전공하고 학계에 진입해 미국에 유학할 수 있었던 첫 세대다.[14] 장왕록은

13 1962년까지 번역되지 않은 장편소설은 *Other Gods: An American Legend*(1940), *China Gold*(1942), *The Promise*(1943), *Bright Procession*(1952)이다.

14 1910년대생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지낸 김성칠, 보성전문학교를 마치고 영국에 유학한 뒤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해방 후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에 유학했다. 장왕록의 등장은 학계의 영문학자를 중심으로 미국문학이 번역되기 시작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삼중당 "펄 벅 걸작 선집" 번역진으로는 통신사 외신부장 문일영과 소설가 손소희 등 몇몇 말고는 주요 대학 영문학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15] 장왕록과 고석구(서울대), 오화섭(연세대), 이장환(숙명여대), 나영균과 조정호(이화여대), 민재식과 조용만(고려대) 등이다. 그중 식민지 시기에 활동한 기자이자 구인회 출신 조용만이 1909년생으로 연배가 가장 높은데, 경성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학계에 들어선 경우다.

1950년대 번역가들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한데, 편의상 몇몇 번역가만 짚어 두기로 한다. 펄 벅 소설을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한 최고(崔杲)는 1924년생인데, 보성전문학교 재학 중 항일 비밀 결사 흑백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영어 교사를 지낸 특이한 경력을 지녔다. 최고가 중국의 항일 투쟁을 다룬 소설을 원제와 전혀 다른 제명으로 옮긴 이유이기도 하다. 이화여자전문학교와 도후쿠제국대학 출신 홍복유(洪福誘)는 1913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냈다. 김귀현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출신의 기자로 홍복유의 제자다. 홍복유와 김귀현은 로맨스를 주축으로 삼은 원작을 골라 번역했는데, 여성 번역가 등장의 신호탄이 될 법하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22년생 이진섭은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기자 겸 시나리오 작가다. 아동문학가 박흥민도 1922년생이다. 1918년생 극작가 주태익은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기독교 잡지와 방송에 몸담았다. 그들의 번역도 더 뒤따르지 못했다. 중앙대학교 영문학 교수 김병철은 펄 벅이 부모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을 처음 번역했다. 펄 벅 단편소설집을 번역한 이호성과 주요섭은 각각 동국대학

낸 이인수는 한국전쟁 중 비극적으로 타계했다.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낸 임학수, 연희전문학교를 나온 뒤 미국에 유학한 설정식은 한국전쟁 중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

15 1950년대 번역에서 대학교수가 중요한 전문가로 등장했다.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2019, 216-226쪽.

교와 경희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냈다.[16]

1950년대 말에는 이미 번역된 소설을 그대로 다른 제명으로 출간하거나 출판사만 바꾼다든지 심지어 번역가 이름을 둔갑시킨 경우가 늘어났다. 〈표 2〉에서 점선으로 구분한 경우는 지형(紙型) 자체가 동일한 단행본이다. 제명이나 출판사가 바뀌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번역가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름만으로 번역가를 확정할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번역가도 등장했다. 또 앞선 번역을 축약해서 출간한 경우도 간혹 눈에 띈다. 번역 출판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각별히 희박한 탓에 무분별하게 자행된 관행인데, 펄 벅 소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0년대 들어 펄 벅의 수차례 방한과 더불어 출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다 보니 단기간에 졸속으로 번역하거나 거의 동시에 중복 출간하는 경우가 늘었다. 미처 조사하지 못한 1963년 이후의 출판 현황까지 감안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요컨대 다채로운 이력의 번역가가 펄 벅 번역에 뛰어들었는데, 장왕록을 비롯한 영문학 교수가 앞장서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여전히 소수에 머물렀으나 여성 번역가가 등장한 대목도 중요하다. 대표작 『대지』 3부작이 두 차례 완역되었을 뿐 아니라 단편집, 평론집,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펄 벅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항일 투쟁 시기의 중국과 아시아인을 그린 소설은 시의성을 잃어 간 대신 전후 미국인의 사랑과 결혼을 다룬 소설이 점차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전후의 펄 벅은 중국 상류 가정이나 서태후를 소설화하는가 하면 서구에서 유학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청년 세대 혹은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 일가를 정면으로 묘파하기도 했다. 또 젊은 미국 여성의 자주적인 삶과 예술에도 주목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오가는 동시대인들, 서로 다른 종교와 이념이 맞부딪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은 펄 벅 특유의 장기이며, 1950년대의 다변화된 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이채로운 번역은 아시아 여성을 재현하면서 혼혈을 첨예하

16 이호성의 『순정』(1961)은 펄 벅의 첫 단편집 *The First Wife and Other Stories* (London: Methuen, 1933)에서 10편을 추린 반면 주요섭의 『펄 벅 단편선』(1962)은 그전 해 출간된 *Fourteen Stories* (N.Y.: The John Day Comapany, 1961)에 수록된 14편을 모두 번역해서 펄 벅의 초기 단편과 동시대 단편을 나란히 선보였다.

게 다룬 일련의 소설이다. 펄 벅이 1951~1953년 잇달아 발표한 『한국서 온 두 처녀』(1953), 『숨은 꽃』(1955), 『오라, 내 사랑』(1957)은 각각 한국, 일본, 인도 문제를 다루었는데, 장왕록이 맨 먼저 손댄 번역들이기도 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박희주와 양태조가 공역한 『모란꽃』(1959)의 원작은 1948년에 출간되었지만 뒤늦게 번역된 수작이다. 중국인 혼혈 문제는 펄 벅이 일찍부터 여러 차례 그린 바 있는데, 『모란꽃』은 중국의 유대인 사회를 전면화한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3 순혈의 가족주의 강박

3.1 하얀 피부의 한국인

한국과 한국인을 다른 펄 벅의 소설은 〈표 5〉에서 제시한 총 4편이다. 장왕록의 『한국서 온 두 처녀』는 1950년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사랑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에 처음 연재된 후 제목을 고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삼중당 선집에는 최용진이 다시 옮겨 『사랑이 움트는 새벽』으로 수록되었다. 원작의 표제로 쓰인 “The Morning Calm”은 19세기 후반 한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관용어인데, 두 여성 주인공이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는 새벽의 희망찬 장면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서 온 두 처녀』의 주인공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 백인 여성이며, 한국전쟁으로 이야기가 촉발되고 마무리되건만 한국은 먼 후경으로 물러나 있다. 두 여성은 계몽적 목소리로 초지일관하며, 돌연한 사태에 맞닥뜨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도식적 인물이다. 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엉성한 짜임새와 설교적 태도를 버무린 졸작으로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펄 벅은 1951년 초 잡지에 이 소설을 연재한 뒤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않았다. 그 빚은 한참 뒤 2편의 장편소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로 갚게 되지만 여전히 한국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 선교사 부부의 딸로 한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10대 후반의 데브라와 메어리 자매는 한국전쟁을 피해 난생처음 뉴욕으로 와 친척 집에 의탁한다.

두 여주인공은 진실하고 순결하며, 몸에 밴 경건한 태도와 유교적 가르침뿐 아니라 깊은 신앙심으로 무장해 있다. 고향 한국을 그리워하는 두 여성은 영락없는 한국인의 모습이어서 파티에서 한복을 입기도 한다. 교조적인 태도로 미국인의 이기주의와 속물적 욕망을 경계하는 자매는 보수적이다 못해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이다. 반면에 부친의 친구와 결혼해서 네 번째 부인이 되려는 친척 집 딸 세라는 재산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생생한 현대 여성이다.

한국에 남은 부모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자매의 운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만 자매 환영 겸 세라의 약혼 발표를 위한 파티가 열린다. 세라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들른 젊은 전염병학자의 구애를 뿌리친다. 이성과 과학, 희생과 헌신을 대변하는 스웨덴인 전염병학자 역시 계몽적일 뿐 아니라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언니 데브라는 그녀에게 감화된 친척 집 아들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동생 메어리는 스웨덴인 청년과 사랑을 약속한다.

실망스럽게도 한국에 대한 펄 벅의 이해는 표제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자매를 하루아침에 고아로 만든 한국전쟁의 참상이나 분단은 화두로 떠오르지 않는다. 도리어 『한국서 온 두 처녀』를 지배하는 "박제된 오리엔탈리즘"의 한계는 명확하다.[17] 데브라와 메어리는 동양적이고 전통적이며, 명상적이고 이상화된 여성이다. 비현실적이며 신비롭기까지 한 이방인 여성들은 한국이나 동양의 여성을 대리할 뿐이며, 실상 펄 벅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데브라와 메어리는 순종적일 뿐 아니라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목소리로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 고대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대가족 제도,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가 정신적으로 보호받는 공동체 문화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설교한다. 요컨대 『한국서 온 두 처녀』에는 미국적 가치관과 서구의 물질주의적 유혹에 전투적으로 맞서는 동양의 계몽적이고 지도자적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린다. 그 목소리는 젊은 현대 여성의 자유와 욕망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가치조차 압도하는 딜레마를 초래한다. 이를테면 자매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 자매는 어느새 친척 집 부인에게 위안을

17 임선애, 앞의 논문, 100-102쪽.

주는 존재가 되지만 권태에 빠진 중년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자매는 흑인 하인이나 아일랜드인 하녀에게도 다정하게 대하지만 동정과 친절에 지나지 않는다. 하인의 아들이 한국에 파병되는 장면은 삽화적으로만 다루어지며, 아일랜드인 하녀는 주인집 아들을 향한 짝사랑을 쉽게 접는다. 세라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이 소설의 중요한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모호한 사랑의 가치로 봉합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인처럼 자란 백인 여성 자매는 마치 펄 벅의 분신처럼 비칠 법하지만 훨씬 기계적이다.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가족과 사랑에 대한 추상적 강조는 『동풍 서풍』에서도 치명적인 결점으로 드러났으나 중국 여성의 삶을 다룬 여러 소설에서 생동감 넘치는 인물과 복잡한 사건 전개를 통해 차차 극복되어 갔다. 그 밖의 소설에서도 아시아 여성을 둘러싼 극단적인 이분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체험의 차이 때문일까?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펄 벅은 난징 시절 한국인 학생을 가르친 바 있고, 미국에서 기업가 유일한(柳一韓)을 비롯한 여러 인사와 교유하며 친분을 쌓았다. 드물기는 해도 2차대전 중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가 하면 한국전쟁 직후 한국계 혼혈아를 입양하기도 했다.[18] 그러나 중국과 인도를 둘러싼 식민주의와 인종 차별에 명백히 반대하고, 중국인 이민 제한이나 일본인 강제 수용과 재산 몰수 등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데 비하자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심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19] 아시아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미

18 펄 벅, 민재식 역, 『나의 자서전』(펄 벅 걸작 선집 15), 삼중당, 1962, 180쪽; 피터 콘, 이한음 역, 앞의 책, 422쪽 · 476쪽 · 508-511쪽 · 547-548쪽. 펄 벅은 한국전쟁에 관해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19 1927년 3월 말 국민혁명군의 난징 공격으로 펄 벅 일가는 구사일생으로 나가사키의 운젠(雲仙)으로 피신해서 8월까지 지내다 상하이로 귀환했고, 이듬해 7월 난징으로 돌아갔다. 『숨은 꽃』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운젠 생활이 남긴 일본의 인상과 기억은 매우 우호적이다. 펄 벅에게 일본은 "세 번째 나라"다. 그동안 펄 벅의 부친은 약 반년간 한국을 방문했는데, 대조적이리만치 부정적이다. 김병철은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으나 이장환은 10여 행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펄 벅, 민재식 역, 위의 책, 11쪽 · 196-197쪽 · 258-269쪽; 펄 벅, 김병철 역, 『아버지의 초상』, 일한도서주식회사, 1960, 242-243쪽; 펄 벅, 이장환 역, 『싸우

국의 역할과 기여를 줄곧 강조한 펄 벅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가족과 사랑의 가치다.

『한국서 온 두 처녀』가 보여주는 기묘한 오리엔탈리즘은 미국인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욕망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나 다름없다. 역부족이지만 펄 벅은 미국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펄 벅은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적 대안을 찾기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일그러진 거울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한국서 온 두 처녀』의 미숙성은 일본인 여성을 다룬 『숨은 꽃』과 인도를 배경으로 삼은 『오라, 내 사랑』에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극복된 반면 훗날 한국 문제를 정면으로 소설화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에서는 유독 순혈의 가족주의적 역사관으로 퇴화하고 만다.

3.2 남성 중심의 가족사와 미국의 책무

한국에 대한 펄 벅의 애정과 한국인의 뜨거운 기대가 조응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는 1963년 원작이 출간되자마자 한 달도 못 되어 장왕록이 조급하게 완역해서 내놓은 역사소설이다. 그사이 일간지에 줄거리가 연재되고 라디오로 낭독되는가 하면 장왕록의 영문판 주해와 또 다른 번역가에 의한 축약본도 동시에 출간되었다.[20] 영어판과 한국어판 모두 아리랑을 새긴 인상적인 표지 디자인을 채용했으며, 갈대보다 대나무가 더 어울리는 한국어 번역 표제는 장왕록이 붙인 대로 통일되어 갔다. 원작의 작품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으나 마치 『대지』 3부작의 속편이나 그에 방불한 것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21]

는 천사 · 어머니의 초상』(펄 벅 걸작 선집 5), 삼중당, 1961, 193쪽 · 394쪽.

20 1967년에 출간된 이윤석의 『바람에 시달려도 갈대는 살아 있다』는 여러 출판사가 달려든 당시 정황과 후기로 미루어 보건대 1963년 장왕록 번역과 동시에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왕록의 번역을 바탕으로 일부 문장을 삭제한 이윤석의 축약본은 1970년대에 이정환과 박도연으로 번역가 이름을 달리하고 장왕록이 붙인 표제로 바꾸어 두 차례 더 출간되었다.

21 김윤경, 앞의 논문, 450-452쪽.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는 1960년대 펄 벅의 잇따른 방한은 물론이려니와 1962년 4월 케네디 대통령의 백악관 만찬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문제에서 미국이 발을 빼고 일본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케네디의 발언은 다소 과장되었을지언정 당시 미국 정가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22] 경위야 어쨌든 펄 벅은 한국에 관한 놀라운 학습력을 발휘하면서 대하 서사의 스케일을 갖춘 가족사 소설을 내놓았다. 이 소설은 1881년 조선 말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이르는 격랑의 근대사를 한반도 안팎을 넘나들며 서사화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서 출발해 갑신정변, 동학운동과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을미사변, 한일병합, 신민회 사건, 1차대전과 삼일운동, 국외 혁명운동과 항일 투쟁, 해방과 미군 진주에 이르는 굵직하고도 빼곡한 역사적 사건이 주인공 김일한의 3대를 꿰뚫고 지나간다. 문제는 역사적 서사의 규모에 압도되어 등장인물을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이 몹시 빈약해졌다는 점이다.

가장 큰 난점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가 보수적인 남성 지배 계급의 시선에서 출발한 데 있다. 제1부의 주인공 김일한은 권문세족 안동 김씨의 독자이며, 흥선대원군에 대항한 민씨 일파의 젊은 수장이다. 완고한 부친에 비해 가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김일한은 조선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민족의 역사 · 지리 기행에 나서기도 하지만 생동감이 없을 뿐 아니라 민중적이지도 않다. 제2부는 김일한의 둘째 아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고 기독교도가 되는 과정이 중심인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둘러싼 과열된 시대적 흥분과 긴밀하게 결부되지 못한 채 서사가 겉돈다. 국내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을 보여줄 법한 둘째 아들 일가는 삼일운동으로 학살된다. 사라진 맏아들은 제3부의 주인공으로 돌아온다. 표제가 가리키는 인물인 “살아 있는 갈대”는 김일한이 아니라 전설적인 혁명가로 성장해 국외로 탈출한 맏아들이다. 항일과 혁명의 길에 투신했다가 만주에서 사생아를 찾아내 함께 돌아온 맏아들은 미군 진주를 환영하러 나섰다가 미군의 총격에 어이없이 사망한다.

기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는 식민지의 정치적 격동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무리하게 접합하면서 허약한 짜임새와 빈곤한 성격 묘사를 노정했다. 남

22 피터 콘, 이한음 역, 앞의 책, 547-549쪽.

성 인물의 성격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될 때만 빛나며, 여성 인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김일한의 부인 박순이, 둘째 며느리 최인덕, 도발적인 여성 혁명가 한녀는 인상적인 캐릭터이지만 남성의 강건한 목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속하는 예술가로 일컬어진 혼혈 댄서 아라키 마리코가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지만 손자 세대의 반목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비단 문학적 상상력의 문제일까? 펄 벅의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가 한국인 독자가 아니라 미국인 독자를 의식하고 창작되었으며, 한국의 역사를 성실하게 재현하기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데 역점을 둔 것은 틀림없다. 구한말의 정치적 혼란과 식민지화를 방관한 것은 물론 분단과 한국전쟁을 초래한 미국의 분명한 부채 의식을 촉구한 펄 벅의 소설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23] 대미에 이르러 "살아 있는 갈대"가 다름 아닌 미군에 의해 사살되는 장면이야말로 상징적이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려 했던 친미 귀족 계급 가문의 허무한 몰락 역시 의미심장하다. 무참히 꺾인 "갈대"의 아들이 북행을 선택하고 한국의 운명이 다시 친미 엘리트의 손으로 넘어감으로써 다가올 긴 냉전이 예고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성황후를 향한 김일한의 내밀한 연정,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 급진적 여성 혁명가 한녀에 대한 결벽적 태도와 친아들에 대한 집념,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 일본계 국제 혼혈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가 한국 특유의 단일 민족 신화와 민족주의적 강박을 뿌리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펄 벅의 여느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태도는 비로소 한국인 혼혈아를 내세운 『새해』에서 역설적으로 증폭된다.

3.3 부계의 책임, 모계의 가족주의

23 장왕록 · 한말숙, 앞의 책, 243-244쪽. 펄 벅의 아시아 인식은 냉전 체제에서 이른바 "중국 상실(Loss of China)"이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낭만적인 태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 논문의 초고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거듭 제기되었으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냉전 체제 속에서 펄 벅 소설의 정치적 독해와 기여에 관해서는 2차대전 이후 중국과 중국인을 다룬 『베이징에서 온 편지』를 비롯한 일련의 소설을 통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년의 펄 벅이 마지막 여덟 번째 방한을 앞두고 내놓은『새해』는 전후 미군에 의해 아시아 곳곳에 퍼져 이제 10대로 자란 아메라시안(Amerasian)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심과 한국계 혼혈아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담고 있다. 미군과 아시아 여성의 혼혈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을 가리키는 아메라시안은 다름 아닌 펄 벅이 고안해 널리 사용된 명칭이다. 1949년 펄 벅의 그린힐 농장에서 웰컴하우스가 출범하고, 1964년 펄벅재단(현 펄벅인터내셔널)으로 확대되었다.[24] 펄벅재단은 미군이 주둔한 아시아 지역에 해외 지부를 설치하면서 그중 한국전쟁을 겪은 뒤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첫 번째 지부를 두고 유일한이 제공한 부천의 공장 부지에 소사희망원을 열었다.

『새해』역시 장왕록에 의해 곧바로 번역되었으나 상투적인 플롯과 계몽적인 화해로 그쳤다. 한국의 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된 묘사, 서사적으로 우연하거나 모순된 서술이 곳곳에서 불거진 것도 큰 약점이다. 게다가 미군 혼혈아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매우 불편한 문제일 뿐 아니라 대규모의 한국 정규군 병력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마당이기도 해서『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만큼 반향을 얻지 못했다.

엘리트 해양학자 로라는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자 주지사로 출마한 유력 후보의 아내다. 남편은 은행가의 지지와 후원을 약속받았으며, 장차 백악관 입성을 노리고 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에게 편지가 도착하면서 파문이 인다. 12년 전 결혼 사흘 만에 남편이 한국에 파병되어 순희라는 여성과 동거하면서 낳은 아들이 느닷없이 소식을 보내온다. 남편은 자신이 버린 아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만 순희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로라는 남편의 전부를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순희를 만나려 하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홀로 한국으로 건너온 로라는 미국 유학생 출신의 한국인 기업가 최씨의 도움을 받아 순희와 소년을 만난다. 또 워커힐에서 젊은 미군 장교들을 만나 혼혈아의 실태를 접하기도 한다. 우여곡절과 숙고 끝에 로라는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간다. 로라 부부는 소년을 기숙학교에 들여보내 교육하고, 서서히 소년에게 마음을 열어 간다. 로라의 남편은 주지사에 당선되고, 그해 마지막 날 밤 파티에서 아들의 존재를 밝힌다.

---

24 펄 벅, 민재식 역, 앞의 책, 375-380쪽; 피터 콘, 이한음 역, 앞의 책, 497-498쪽.

소년을 “아버지의 나라” 미국으로 데려가 부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로라의 선택은 단지 소년의 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 본 순희가 미천한 매춘부나 기지촌 위안부가 아닌 데다가 고상하고 우아하며 품위 있는 여성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순희는 단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남편과 동거했다. 또 최씨가 후원하고 있는 유명 요정의 마담이 된 순희는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거절하기로 유명하다. 최씨의 말에 따르면 순희는 묘한 모성을 지닌 “강철 같은 여성”이며, 로라가 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고 존중할 만한 여성 예술가다. 게다가 혼혈 소년 또한 길거리의 비참한 부랑아로 전락하지 않고 잘 교육받았으며, 총명하고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았다. 이상화된 한국 여성과 예의 바르고 성찰적인 소년의 모습은 『한국서 온 두 처녀』를 억지로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소산이라기보다 역사적 현실의 왜곡이자 의식적 기망이다. 왜냐하면 순희의 이상화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된 합법적 성 착취와 기지촌에서 자행된 매매춘 문제를 은폐하며, 요정 마담을 전통 예술가나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참상이나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고아가 아닌 혼혈 소년의 성공은 버려진 아메리시안의 비참한 삶과 사회적 · 계급적 차별에 눈감게 만들고 헛된 아메리칸드림을 낭만적으로 포장한다.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법률”로 매매춘을 옹호하기까지 하는 최씨와 이를 용인하는 미국 엘리트 여성 로라 사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25] 로라는 한국의 단일 민족 신화와 순혈주의에 적극 동조한다.

문제는 또 있다. 혼혈 소년은 성공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가족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선포하는 것은 뜻밖에도 로라가 아니라 남편이다.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마지막 장면은 독단적인 백인 남성 가부장의 용기와 결단을 부각한다. 혼혈 소년은 미국이라는 “아버지”를 얻는다. 한편 한국에 남은 순희는 4천 달러의 양육비를 받고 미련 없이 직업을 버리며, 사랑을 바친 미국 백인 남성과 혼혈 아들의 사진을 태운 뒤 최씨의 후처로 들어감으로써 순혈의 가부장적 가족을 꾸

25 장왕록 역, 『새해』, 민중서관, 1968, 149-152면.

린다. 순희를 저버린 남성의 해명이나 역사적 화해는 전혀 염두에 없다. 결국『새해』는 미국 여성 로라와 한국 여성 순희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가족을 완성하는 부계 혈통과 가부장의 권위를 재확인해 준다. 여성의 몫은 다시금 모성으로 되돌아가며, 모성이 단일 민족의 신화와 순혈주의를 지탱하는 축임을 알려 준다.

치명적인 문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더 고려해야 한다. 첫째, 로라가 동식물의 중간 종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설정된 것은 펄 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동풍 서풍』이래 펄 벅이 일관되게 꿈꾼 서로 다른 "여러 세계"의 다양화와 대통합이라는 과제는 인종 간의 평등한 결혼으로 태어나 미래의 새로운 인류로 성장할 혼혈아에게 주어져 있다. 혼혈아야말로 진보된 새 종족이며 세계 시민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펄 벅의 기발한 전도는 그 자체로 값진 인식이다.[26] 둘째,『새해』역시『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매한가지로 미국인 독자를 위한 소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십분 양해하기로 한다면 펄 벅이 상정한 독자는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상류층이나 지식인이며, 혼혈아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후원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인정한다면『새해』에 앞서 발표된『매슈, 마크, 루크, 존(*Matthew, Mark, Luke and John*)』(1967)에도 주목해야 마땅하다. 펄 벅이 여러 편의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창작한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해일(The Big Wave)』(1948)이 유명하다.[27] 반면에

---

26 허정애, 앞의 논문, 100-106쪽.

27 Pearl Buck, illustrated with prints by Utagawa Hiroshige and Katsushika Hokusai, *The Big Wave*, N.Y.: The John Day Company, 1948; 펄 벅, 강유하 역, 류충렬 그림,『해일』, 내인생의책, 2002.『해일』은 1948년 미국 아동연구협회 아동도서상을 수상했다. 1960년『해일』이 미일 합작 영화로 제작될 때 펄 벅이 많은 공을 들였으나 상영 자체가 무산되었다. 鈴木紀子,「'幻の映畵'をめぐって:『大津波』日米合同映畵製作とパール・バック」,『大妻レヴュー』第48號, 東京: 大妻女子大學英文學會, 2015, 39-49쪽; 鈴木紀子,「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戰後冷戰期日米文化關係」,『人間生活文化研究』第28號, 東京: 大妻女子大學 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2-96쪽; 양아람, 앞의 논문, 441-445쪽. 당연히 한국에서도 영화가 소개될 수 없었는데, 펄 벅의 또 다른 자서전『인도교(*The Bridge for Passing*)』(1962) 출간 소식에 곁들여 영화 제작 당시 펄 벅이 남편 리

『매슈, 마크, 루크, 존』은 번역되지 않았을뿐더러 한국에 아예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어서 문제다. 동맹국 주둔군 혼혈아의 시선으로 어머니에게마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꺼림칙한 이슈를 다룬 탓이다. 표제는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혼혈아 4명을 가리키는데, 복음서 저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기도 하다. 매슈는 아버지 역할을 맡으며 비참한 생활에 빠진 아메라시안 소년들을 이끈다. 그러다 미군 샘이 매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매슈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만 세 소년을 잊지 못한다. 샘은 이웃을 설득해서 모두 입양하여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동화다운 낭만적 결말이요 설교조도 여전하지만 이웃의 공감과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점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4 아시아 여성과 혼혈의 상상력

4.1 낭만적 사랑과 혼혈의 공포

패전 직후 일본 운젠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숨은 꽃』은 일본 여대생 사카이 요시에와 점령지 주둔 장교 앨런 케네디의 사랑과 결혼을 그렸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의사인 요시에의 부친은 태평양전쟁 때 일본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미군으로 참전한 아들을 잃었다. 다도회에 열정적으로 빠져든 부친은 "순수한 일본 정신"을 지키며 "참다운 일본인"으로 거듭나기를 강박적으로 다짐한다. 미국에서 자라며 교육받은 요시에는 열정적인 내면을 지녔다. 우연한 만남으로 미군 장교 앨런과 사랑에 빠진 요시에는 선량하고 성실한 일본 청년 고보리와 파혼하고, 결혼을 약속한 앨런과 과감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요시에의 부친은 물론 앨런의 상관마저 청춘 남녀의 애정이나 사랑은 별로 중시하지 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혼혈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요시에의 부친은 일본인의 순수한 혈통을 "정복자"의 피로 더럽힌다는 점에서, 앨런의 상관은 "저주스러운 전쟁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혼혈을 극력 부정

처드 월시와 사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였다. 「『인도교』는 최후 작품: 펄 벅 여사의 문단 고별설」, 『마산일보』, 1962.4.6, 4면; 펄 벅, 염기용 역, 「인도교」(전 4회), 『마산일보』, 1962.6.20-6.23, 4면.

한다.[28]

어렵게 미국에 도착한 요시에는 앨런의 모친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앨런의 고향인 남부에서 백인이 유색 인종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다. 요시에와 앨런은 뉴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지만 곧 균열이 생긴다. 고향을 방문한 앨런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쪽을 택하며 요시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임신한 채 집을 떠난 요시에는 고보리의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입양 기관에 맡기기로 마음먹는다. 요시에의 출산을 맡은 독일인 의사 스타이너는 나치의 학살을 경험한 미혼의 유대인 여성인데, 혼혈아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유색 인종 입양 차별에 분노한다. 요시에는 "세계의 어린애"를 순산하며, 스타이너는 요시에의 아이를 입양해 기르기로 한다. 스타이너는 요시에에게 아이를 함께 기르자고 권하지만 요시에는 고보리와 함께 귀국함으로써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기로 결심한다.

짜임새가 탄탄하고 여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숨은 꽃』은 펄 벅의 장기가 잘 살아 있는 수작이다. 동양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과학자의 입을 빌려 혼종적 세계 시민이자 미래의 신인류인 혼혈아의 우수성을 강변하는 한계는 여전하다.[29] 그러나 남성 정복자와 패전국 여성, 법과 제도와 관습에 굴복하는 남성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자주적 여성의 입체적인 대비를 통해 열정적인 사랑과 결혼의 파탄을 섬세하게 묘파했다. 펄 벅은 비현실적인 낙관에 기대지 않고, 아시아 여성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주체적 선택을 존중한다.

남부 백인 남성인 앨런의 변심은 인종 차별과 편견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안전한 미래와 타협하려는 미국적 속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시에가 스스로 떠난 사실을 알고 앨런은 비로소 안도한다. 파경의 책임을 외면한 앨런은 남부

28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은 박이진,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GHQ 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235-267쪽; 박이진,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 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일본문화연구』 제77호,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109-128쪽; 下地ローレンス吉孝, 『'混血'と'日本人': ハーフ · ダブル · ミックスの社會史』, 東京: 青土社, 2018, 61-133쪽.

29 허정애, 앞의 논문, 94-100쪽.

고향의 “완전성”을 핑계로 보수적인 부모 세대에게 자발적으로 예속되고, 고향 여성과 결혼을 꿈꾸지만 결국 거부당한다. 혼혈은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편협한 민주주의, 미국인의 위선과 자기기만을 비판하고 여성에게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되돌려 주기 위한 펄 벅의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다.

한편 스타이너가 요시에에게 “세계의 어린애”를 함께 기르며 살자고 권하는 대목은 여성주의적 우호와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요시에는 현실과 자신의 욕망에 더 충실한 편을 선택한다. 법이 개선되고 사회가 진보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미래일 뿐이며, 출산 직후 “거룩한 일주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는 더 이상 요시에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다. 이 점은 요시에가 고보리와 함께 돌아가더라도 부친처럼 그전의 일본이나 일본인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유색 인종 여성 요시에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고 그녀 자신이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4.2 혼혈과 희생적 선교의 허위

펄 벅은 『오라, 내 사랑』에서 처음으로 식민지 인도를 무대로 삼았으며, 놀랍게도 유일하게 선교사 일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30] 미국 백인 상류층인 매커드 가문 4대, 즉 매커드, 데이비드, 테드, 리비가 19세기 말부터 2차대전 직후까지 반세기 넘게 인도에서 “실천적 전도 사업”에 매진하는 장대한 규모의 가족사 소설이다. 『오라, 내 사랑』은 식민지 문제와 기독교 선교를 세대 갈등과 엇갈리는 사랑 속에서 다룬 점이 뛰어나며, 마지막 세대 리비가 여성인 점도 인상적이다.

철도와 무역으로 자수성가한 젊은 실업가이자 대부호 매커드는 아들 데이비드와 인도를 여행하다가 “확장의 시대”에 걸맞게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파견하기 위한 신학교 설립을 구상한다. 부지 매입에 나선 데이비드는 올리비아에게 반해 청혼하지만 거절당해 낙심하고 혼자 인도로 떠난다. 매커드는 미국에서 신학교 대신 공장을 세우고, 데이비드는 현지 언어를 익히며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선교”를 꿈꾼다. 데이비드는 런던에서 사귄 인도인 명

30 피터 콘, 이한음 역, 앞의 책, 524쪽.

문 귀족 다르야 샤프르와 교유하며, 그의 도움으로 올리비아에게 다시 청혼하여 결혼에 성공한다. 올리비아는 아들 테드를 낳은 뒤 페스트로 사망하고, 다르야 일가 역시 몰살되고 혼자 남는다.

미국에서 공부한 테드가 다시 인도로 돌아와 부친의 신학교에 부임한다. 1차대전 후 간디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다르야가 체포된다. 테드는 다르야의 가르침을 따라 민중이 사는 "마을"을 여행하며 "무기 없는 백성"과 직접 만난다. 테드는 동부 주지사의 딸인 영국 여성에게 청혼하지만 그녀는 테드의 부친 데이비드와 결혼해 뉴욕에 안주하고, 테드는 가난한 선교사 부부의 딸과 결혼한다. 인도 민중은 지식인의 태도를 벗어 버리지 못한 다르야보다 민중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수행하는 테드 부부를 따른다.

매커드, 데이비드, 테드 3대는 서로 다른 선교 시각을 갖고 충돌한다. 갑부 매커드의 선교 구상은 위선적임이 드러나고, 데이비드는 식민지 당국과 타협하며 상류층 인도인을 대상으로 시혜적 선교에 열중하지만 결국 포기한다. 테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민중과 함께하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이는 인도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차대전 직후 인도가 독립하고 다음 세대인 딸 리비에 이르러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충격이 일어난다.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인들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며 자라난 리비는 미국 유학마저 거부하며 인도인 속으로 거의 완전히 녹아들어 가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리비가 인도인 청년 의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폭발한다. 리비는 밤마다 의사를 찾아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이를 눈치챈 인도인들은 침묵으로 리비를 보호한다. 그러나 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평생 지켜 온 신념과 양심을 보류하며 실패를 자인한다. 테드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을 격렬하게 부정하며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인도인 청년 의사는 테드의 영혼과 육체, 이상과 실천이 분리되었음을 간파하고, 억지로 기선에 올라탄 리비는 임신을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커드 일가의 선교 사업은 민족주의와 민중성까지 어렵게 성취하며 서구 중심적 배타성을 극복해 왔으나 가장 최후 단계인 인종 차별과 편견에 맞닥뜨려 순식간에 무너진 셈이다. 이를 촉발한 것은 선교사 집안의 딸로 태어나 인도에 완전히 동화되다시피 한 백인 여성 리비다. 탁월하게도 펄 벅은 일관되게 부

르짖어 온 혼혈의 미래적 가치를 섣부르게 내세우지 않는다. 리비의 운명은 성급한 화해 대신 다음 세대의 과제로 신중하게 이월된다. 그것은 리비와 같은 미래 세계의 새로운 여성 시민이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종교와 이념, 계급과 신분, 세대와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온갖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억압을 타파하며 떠맡아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된다.

4.3 여성의 혈통과 계급

박희주와 양태조가 공역한 『모란꽃』은 펄 벅 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된 1959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가 1962년 삼중당 선집에 합류한 경우다. 이 소설은 원작이 1948년에 출간된 데 비해 비교적 늦게 주목되었는데, 펄 벅의 본령이라 할 중국에서도 다소 이색적인 무대를 골랐기 때문이다. 종전 후 펄 벅은 급박했던 전시와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여인의 전당』(1947)은 난징의 상류층 중년 여성이 자주적인 삶을 선언하고, 파문당한 이탈리아인 신부를 만나 따뜻한 우정과 애정을 나누는 이야기다. 『성난 아내』(1947)는 남북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흑백 갈등과 인종 차별을 둘러싼 두 형제의 갈등을 그렸다.[31] 『모란꽃』은 1890년대 허난성의 고도 카이펑(開封)에 자리 잡은 유대인 집안의 중국인 하녀 모란의 시선을 차분하게 따라가며 여성의 운명을 조명했다.

카이펑은 송대부터 많은 유대인이 신앙을 지키며 정착한 도시인데, 점차 중국에 동화되다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난 청대 말에는 공동체가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란꽃』은 카이펑의 마지막 랍비가 죽으면서 유대인 가문들이 흩어지거나 중국인과 완전히 동화된 최후의 장면을 서사화했다. 슬기롭고 사려 깊은 모란의 내면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묘사한 것은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모란의 낮은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이방인과 그들을 둘러싼 다채로운 인물의 삶이 개성적이고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펄 벅은 생경한 설교나 계몽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릴 때 하녀로 팔려 온 모란은 유대 상인 에즈라 부부와 아들 데이비드를

31 피터 콘, 이한음 역, 위의 책, 482-483쪽 · 487쪽.

섬기며 살아간다. 중국인 첩의 소생인 에즈라는 고집 세고 신앙심 깊은 유대 장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에즈라 부인은 데이비드가 눈먼 랍비의 딸 리아와 결혼해 신앙 공동체를 이어 가기를 바란다. 리아가 에즈라 집에 머물게 된 첫날 유대인과 중국인 혼혈의 카오리엔이 이끄는 캐러밴이 도착해서 유대인 핍박과 학살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계기로 데이비드와 리아의 "민족의식"과 신앙심이 위험스럽게 깨어난다. 모란은 기회를 타서 중국인 상인 쿵첸의 딸 쿠에일랑이 데이비드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조심스레 주선한다.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모란은 데이비드가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침착하게 행동에 옮긴다. 사업 이익에 충실한 쿵첸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대교의 선민의식과 배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리아는 데이비드와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칼로 데이비드를 내리친 뒤 자살하고 만다. 데이비드와 결혼한 쿠에일랑은 유대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 랍비와 후원자 에즈라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신앙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는 사실상 무너진다. 데이비드는 장인 쿵첸의 제안으로 일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대신 베이징을 여행한다. 데이비드 가족은 의화단의 난으로 피신했다가 환도한 서태후를 알현하는데, 모란에게 눈독을 들인 고관의 위협을 감지하고 급히 돌아온다. 데이비드의 첩이 되는 길 대신 모란은 절로 도피하여 덕망 있는 여승으로 일생을 보낸다.

기실 『모란꽃』의 흡입력은 매력적인 품성의 모란과 데이비드 사이의 팽팽한 균형에서 빚어진다. 전반부에서 리아와 쿠에일랑 사이의 묘한 긴장을 자아내는 것은 모란이며, 후반부에서 데이비드의 사랑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도 모란이다. 또 유대인 집안과 중국인 집안을 오가며 인연을 잇거나 관계를 떠받치는 힘도 모란에게서 나온다. 영악하다고도 볼 법한 모란의 진중한 태도는 자기 앞 세대의 하녀나 중국인 또는 유대인 하인들에게서 물려받은 교훈이며, 외부의 권세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모란이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데이비드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주체는 모란 자신이다.

얼핏 『모란꽃』은 인종과 종교 갈등을 중심에 둔 것처럼 보인다.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가는 카이펑 유대인을 되살린 점에서 그러하며,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대화와 화해를 촉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겉보기에 민감하게 다루어진 바와 달리 정작 주인공 모란은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 무감하거나 둔감하다. 모란이 인종이나 종교보다 더 중시하는 가치는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내면과 자주성이며, 모란의 현명함은 오히려 하층민으로서 신분과 계급적 감각에서 우러나온다. 예컨대 데이비드 부부의 아이들에게 유대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 모란의 성숙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펄 벅의 역사적 시선은 어김없이 중국의 하층 여성에게서 보편적 미덕을 발견한 셈이다.

5 펄 벅의 오독 혹은 모순

펄 벅은 한국에서 동시대적으로 번역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여성 작가다. 1930년대 『대지』의 작가 펄 벅은 1950년대 한국어 번역을 통해 대중적 독서와 출판 시장의 총아이자 보편적 휴머니즘과 모성애의 기수로 변신했다. 전후의 펄 벅은 각색의 군상, 그중에서도 아시아 여성의 다양한 삶의 방식,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 산물로서 혼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냈다. 펄 벅의 소설이 한국 독자에게 인기를 끌고 호소력을 발휘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 여성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의 기회를 상상한 데 놓여 있음은 틀림없다.

한국의 편애와 달리 막상 펄 벅은 한국인을 재현하거나 약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한국서 온 두 처녀』에서 펄 벅은 동양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백인 중산층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관습적으로 되풀이했을 따름이다.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이 한국을 경험한 미국 백인 여성일 뿐이라 하더라도 1960년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식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다. 펄 벅은 미국이 여타의 침략적 제국주의 열강과 엄연히 다르며, 윌슨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후에도 한국의 보호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펄 벅이 혼혈 "고아"의 "어머니" 자리를 자처함으로써 "혼혈" 고아를 책임지고 미래를 약속할 가부장적 지위와 책임은 "아버지의 나라"에 주

어졌다. 이는 정작 “모성”에 시종일관 냉담한 펄 벅의 태도와 부합하며, 미군 혼혈아의 존재를 꺼리고 언급 자체를 주저한 한국의 입장과도 잘 들어맞았다.

아시아 여성과 혼혈에 대한 펄 벅의 관심은 가부장의 역할이 아니라 평등한 남녀 관계와 민주적인 사회의 가능성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빛을 발했다. 아시아 점령국 일본과 패전국 독일계 유대인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 『숨은 꽃』, 서구 중심적인 선교와 인도 민족주의 양편에 모두 거리를 두기 시작한 선교사 4세 여성을 등장시킨 『오라, 내 사랑』, 카이펑 유대인 후손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지킨 중국인 하녀의 초상 『모란꽃』이 그러하다. 이 소설들의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하면서 전후의 미국적 통합의 가치를 역사적 시선으로 서사화하려는 펄 벅의 고투가 담겨 있다. 펄 벅의 가장 귀중한 공헌은 아시아 여성의 삶과 운명을 포착함으로써, 또한 민중적 가치를 희석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재현하려고 한 점에 있다. 특히 가부장적 욕망과 거리를 둘수록 도식적이거나 계몽적인 펄 벅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여성의 내면과 지향을 더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이 외국인이자 이방인임을 자각하는 순간은 타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태생적으로 “여러 세계”에 속한 펄 벅은 아시아 여성과 혼혈의 상상력을 통해 인종, 지역, 종교, 계급, 성별의 경계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전후의 펄 벅은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꿈꾸었다. 그것이 이상주의적이라 할지라도, 또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할지라도 미래의 코즈모폴리턴이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라는 점을 양보하지 않았다. 1950년대 한국의 애독자들은 신화화된 모성이나 박제된 휴머니즘이 아니라 펄 벅이 보여준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관계에 공명했다. 그런 점에서 펄 벅의 소설을 다시 읽고 공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 1] 펄 벅『대지』3부작 번역 (1936~1962)

번역가	표제	지면·출판사	출판 일자	기타
심훈	대지	『사해공론』 2(4)~2(9)	1936.4.1-9.1	전 6회, 미완 제1~6장, 머리말 윤상렬 삽화 니 이타루 중역
노자영	금색의 태양	명성출판사	1940.3.28	292쪽 중 1-140쪽 세계문학전집 1 최배근 장정 「대지」,「어머니」, 「퀴리 부인」
	대지	학림사	1949	292쪽 미확인 (목록)
김성칠	대지	인문사	1940 (초판) 1941 (재판)	미확인 (광고) 완역, 450쪽 세계명작(소설)총서
		학림사	1949	421쪽 미확인 (목록)
		우신사	1949	
		태극사 희문사 교양사 교양사 아동문화사 신명출판사 한양출판사 남창문화사 제문출판사	1953.8.25 1957 1958.9.15 1959.11.15 1961.9.10 1962 1965.2.25 1969 1970	421쪽 세계명작총서 1 (태극) 원저자 소개 (태극)
		영흥문화사 영흥문화사 오성 창일출판사 민중서관	1974 1977.9.10 1979 1981 1981	328쪽 세계문학 (영흥) 세계문학대전집 1 (창일) 노벨문학상전집 10 (민중)

조상원	대지 제1부	현암사	1부 1956.11 1958.3.5 2부 1957.1.15 1958.3.5 3부 1958.1.15	현암문고 별제판(別製版), 전 5권, 중역 머리말 (1956~1957) 제1부 398쪽 제2부 254, 570쪽 제3부 249, 537쪽
	대지 제2부			
	대지 제3부			
장왕록	대지	삼중당	1부 1960.8.10 2부 1961.11.15 1962.4.30 1962.11.10 3부 1962.6.15 1962.11.10	펄 벅 걸작 선집1~3 머리말 (1960~1962) 제1권 305쪽 제2권 337쪽 제3권 326쪽
	아들들			
	분열된 일가			

[표 2] 펄 벅 단행본 번역 출판 (1953~1962)

번역가	표제	출판사	출판 일자	기타
최고	흑과 백	산해당	1953.2.10	316쪽 머리말 (1950.1.30) *China Flight* (1945)
	격류	산해당	1953.11.25	
장왕록	한국서 온 두 처녀	학우사 진명문화사	1953.9.5 1959	222쪽 『평화신문』 연재 (1952) 머리말 (1953.7) *Love and the Morning Calm* (1951, 연재)
홍복유	여학사(女學士)	정연사 (창문사)	1953.11.25	317쪽 머리말 (1953.7.31) *Sylvia* (1951)
김호	실비아의 사랑	세계문화사	1958.1.25	
	그 여자의 사랑	공동문화사	1962.12.30	
이진섭	인생항로	정음사	1953.12.12 (초판) 1954.8.12 (초판)	204쪽 『연합신문』 연재 (1952) 후기 (1953.8 말복) *Journey for Life* (1943)

장왕록	여인의 전당	대신문화사	1955.2.20	440쪽 머리말 (1954 만추) *Pavilion of Women* (1946)
장왕록	숨은 꽃	민중서관	1955.2.27 (초판) 1956.8.20 (재판) 1958.10.20 (4판)	442쪽 민중현대총서 8 후기 (1955.2) *Hidden Flower* (1952)
			1962 (5판)	377쪽, 미확인
장왕록	오라, 내 사랑	수도문화사	1957.10.15	472쪽 머리말 (1957.1) *Come My Beloved* (1953)
김해동	결혼 초상화	장문사	1957.12.7	424쪽 *Portrait of a Marriage* (1945)
박흥민	어머니	대문사 백인사	1957.12.15 1961.11.25	430쪽, 머리말, 중역 *The Mother* (1934)
김귀현	북경서 온 편지	여원사	1958.8.25 (초판) 1958.10.10 (재판) 1958.12.30 (4판)	286쪽, 김훈 장정 머리말 (홍복유, 1958.8.18) 후기 (1958 초추) *Letter from Peking* (1957)
김성필	북경서 온 편지	진문출판사	1961.4.15	
김성한	남성과 여성	정신사	1958.11.16	239쪽 후기 (1958.7.9) *Of Men and Women* (1941)
이희정	여자의 길	정신사	1961.12.10	
주태익	하나님의 사람들	신교출판사	1959.1.10	319쪽, 상권 *God's Men* (1951)
인우성	북경서 온 편지	충문사 교양사	1959.3.25 1960.1.15	251쪽, 후기 *Letter from Peking* (1957)
		진문출판사	1969.12.20	
이호성	결혼의 생태	양문사	1959.5.31	293쪽 양문문고 A-5 14 서문문고 83 머리말(1959.4) *Portrait of a Marriage* (1945)
		서문당	1973.8.15	

정렬	중국의 하늘 (차이나 스카이)	영학사 경문출판사	1959.9.15 1965.1.10	328쪽 머리말 (1959.8.27) 세계명작선집 (성동) *China Sky* (1941)
	대지의 사랑	대문사	1962.10.25	
고정수	대지의 사랑	성동문화사	1967.11.10	
김귀현	나의 자서전	여원사	1959.9.25	322쪽, 축약 후기 (1959 늦여름) 노벨문학상수상작가 (진문) *My Several Worlds* (1954)
김귀수	나의 자서전	진문출판사	1961.4.1	
박희주 양태조	모란꽃	삼중당	1959.12.15 1962.11.10	347쪽, 펄 벅 걸작 선집 8 (1962) 머리말 (김말봉, 1959.12.1), 후기 *Peony* (1948)
이재열	용자	태양출판사 신생사(아동 문화사)	1959.12.20 1961.11.25	195쪽, 17장 태양문고 3 세계명작신생대중문고 3 *Dragon Seed* (1942)
이재열	친척	태양출판사 신생사(아동 문화사)	1959 1961.11.30	193쪽 중 11-181쪽 축약, 태양문고 16 세계명작신생대중문고 16 *Kinfolk* (1949)
심재언	숨은 꽃	동학사 합동출판사 청산문화사	1959 1962.10.25 1965 1974.10.20	264쪽, 축약 김종원 장정 (합동) 순정명작소설 (청산) 세계문학선집 (1974) 후기 (1959.10) *Hidden Flower* (1952)
장왕록	영원한 사랑	범문각	1959.6.15 (초판) 1959.8.10 (재판) 1959.10.10 (3판) 1960.2.1 (4판)	345쪽 머리말 (1959.4) 외국문학번역총서 특제판, 보급판 *The Long Love* (1949)

이수익	북경서 온 편지	태서문화사	1959.5.10	274쪽, 영문판 주석 *Letter from Peking* (1957)
허문영	동풍 서풍	대동당	1960.1.20	197쪽, 명작소설 노벨 클럽 14 A-4 머리말 (1960.1.1) *East Wind; West Wind* (1930)
장왕록	자랑스러운 마음	양문사	상 1960.2.20 하 1960.3.20 (초판) 하 1962.8.15 (재판)	전 2권, 양문문고 A-17 80, 288쪽 A-18 81, 159쪽 머리말 (1959.12) *This Proud Heart* (1938)
김병철	아버지의 초상	일한도서 출판사	1960.3.25	252쪽 후기 (1959.7) *Fighting Angel* (1936)
원창엽	오라, 내 사랑	동학사 청산문화사	1960.7.10 1962.2.28	263쪽, 세계명작선집 *Come My Beloved* (1953)
이재열	궁정의 여인	신태양사 출판국	1960.9.15 (초판) 1960.11.20 (재판)	314쪽 (신태양) 274쪽 (교양) *Imperial Woman* (1956)
강풍자	궁정의 여인	교양사	1961.10.10	
옥병광	흙	대영출판사	1960.10.5	221쪽, 12장 머리말 (1960.9.1) *Dragon Seed* (1942)
원창엽	찔레꽃	입문사 입문사 청산서림	1959 (미확인) 1960.10.10 1961	258쪽 세계명작선집 (입문) 사랑의 소설 (입문) 순정명작소설 (청산) *Kinfolk* (1949)
	친척	입문사	1960 (미확인)	
원창엽	궁정의 여인	동학사	1960.11.10	242쪽, 세계명작선집 후기 (1960.10.25) *Imperial Woman* (1956)
안동만	서태후	철리문화사 합동출판사	1961.5.15 1962.11.20	

장왕록 이진섭	여인의 전당 인생항로	정음사	1960.12.15	438쪽, 유윤상 장정 세계문학전집 23 해설 *Pavilion of Women* (1946) *Journey for Life* (1943)
원창엽	모란꽃	동학사 합동출판사	1960 1962.10.25	274쪽, 세계명작선집 후기, *Peony* (1956)
이호성	순정	양문사	1961.5.5	214쪽, 단편 10편 머리말 (1960.2) 양문문고 A-22 4 *The First Wife and Other Stories* (1933)
안동만	동백꽃	철리문화사 한림사	1961.9.15 1962	252쪽, 미확인 세계명작선
장상국	어머니	백문사	1961.10.7	200쪽 머리말 그린판 세계문학전집 (학진) *The Mother* (1934)
		학진출판사	1974.4.30	
양태조	성난 아내	조문사 지원사	1961.4.10 1971	281쪽 머리말 (1961.3.20) *The Angry Wife* (1947)
주요섭	펄 벅 단편선	을유문화사	1962.3.15	485쪽, 단편 14편 미국단편집, 현대미국단편소설선집 7 머리말 (1962.2) *Fourteen Stories* (1961)

〈표 3〉 펄 벅 걸작 선집 (삼중당, 1960~1962)

	번역가	표제	출판 일자	기타
제1권	장왕록	대지	1960.8.10	305쪽 해설 (1960.8) *The Good Earth* (1931)

제2권	장왕록	아들들	1961.11.15 1962.4.30 1962.11.10	337쪽 해설 (1961.11) *Sons* (1932)
제3권	장왕록	분열된 일가	1962.6.15 1962.11.10	326쪽 해설, 후기 (1962.5) *A House Divided* (1935)
제4권	문일영	동풍 서풍 외	1962.11.5	233쪽 단편소설 2편, 해설 *East Wind; West Wind* (1930)
제5권	이장환	싸우는 천사 어머니의 초상	1961.10.10 1962.11.10	394쪽 해설 (1961.7), 후기 *Fighting Angel* (1936) *The Exile* (1936)
제6권	조용만 조정호	애국자	1961 1962.11.10	296쪽 해설 (1961 입동) 후기 (1962.11) *The Patriot* (1939)
제7권	문일영	여인의 전당	1961.11.10 1962.11.10	422쪽 해설, 후기 *Pavilion of Women* (1946)
제8권	박희주 양태조	모란꽃	1959.12.15 1962.11.10	347쪽 머리말 (김말봉, 1959.12.1), 후기 *Peony* (1948)
제9권	오화섭	친척	1960.7.5 1962.11.10	432쪽 해설, 후기 (1960.6) *Kinfolk* (1949)
제10권	손소희	어머니 자라지 않는 아이 외	1961.11.20 1962.11.10	304쪽, 천경자 장정 단편소설 3편 해설 (1961.11), 후기 *The Mother* (1933) *The Child Who Never Grew* (1950)
제11권	나영균	신의 인간들	1961 1962.11.10	472쪽 해설 (1961.11), 후기 *God's Men* (1951)
제12권	고석구	도시인	1962.2.5 1962.11.10	471쪽 머리말, 해설, 후기(1962.1) *The Townsman* (1945)

제13권	장왕록	영원한 사랑 하녀 제시카	1962.9.20	405쪽 해설, 후기 (1962.9) *The Long Love* (1949) *Voices in the House* (1953)
제14권	최용진	위대한 아침 사랑이 움트는 새벽	1961.11.15 1962.11.10	366쪽 해설, 후기 (1961.11) *Command the Morning* (1959) *Love and the Morning Calm* (1951)
제15권	민재식	나의 자서전	1962.11.5	431쪽 해설 (1962.11.1) *My Several Worlds* (1954)

[표 4] 펄 벅 전집 (1960~1984)

표제	출판사	출판 일자	기타
펄 벅 걸작 선집	삼중당	1960~1962	전 15권 장왕록 외 12인
펄 벅 전집	대양서적	1969 (초판) 1970.6.20 1971.1.10 1972.11.15 1973.10.20	전 5권 장왕록 · 양찬규 세계명저정선집 『새해』 (제1권) 『갈대』 (제2권)
펄 S. 벅 전집	광학사	1974.9.25	전 5권, 안동민 『새해』 (제5권)
펄 S. 벅 전집	한영 출판사	1976	전 5권 홍사중 외 3인
펄 S. 벅 전집	예서각	1979	전 5권, 안동민 광학사 동일
펄 벅 전집	형문출판사	1980.11.10	전 5권, 홍사중 외 3인, 한영출판사 동일
펄 벅 대전집	백문당	1980.12.20	전 8권, 신역 안동민 · 한완일 『유혹의 밤』 (제1권) 『살아 있는 갈대』 (제4권) 『새해』 (제8권)

펄 S. 벅 전집	한국법조사	1981	전 5권 이상빈 외 4인
펄 벅 대전집	삼성문화사	1984.5.25	전 10권, 대구 안동민 · 한완일 백문당 재편

[표 5] 한국 관련 펄 벅 소설 (1952~1968)

번역가	표제	지면 · 출판사	출판 일자	기타
장왕록	사랑과 한국	평화신문	1952.8.16 - 11.24	2면, 전 92회 김용수 삽화
	한국서 온 두 처녀	학우사 진명문화사	1953.9.5 1959	222쪽 머리말 (1953.7)
최용진	사랑이 움트는 새벽	삼중당	1961.11.15 1962.11.10	펄 벅 걸작 선집 14 해설, 후기 (1961.11)
안동림	살아 있는 갈대	경향신문	1963.9.10 - 10.19	5면, 전 31회, 축약
-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기독교방송	1963.9.30 - 미상	라디오 낭독 10분, 약 80회 예정
장왕록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삼중당	1963.9.15 (초판) 1963.10.10 (중판) 1963.11.25 (중판)	475쪽 후기 (1963 초추) 김성복 표지
장왕록	*The Living Reed : with Introduction and Notes*	육민사	1963.10.20	560쪽, 영문판 주해 현대세계영문학총서 1
이윤석	바람에 시달려도 갈대는 살아 있다	평화문화사	1967.11.5	351쪽, 축약 후기 (1963.9) 신세계문학전집 (문해)
이정환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평화문화사	1972.6.15	
박도연		문해출판사	1978.1.10	
Paerl Buck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John Day Company	1967	80쪽, 미번역 Mamoru Funai 삽화

장왕록	새해	민중서관	1968.9.10	335쪽 후기 (1968.8.15) *The New Year* (1968)

참고문헌

김병철,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상, 을유문화사, 1998.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35-457쪽.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쪽.

_____,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박이진,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GHQ 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235-267쪽.

_____,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 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일본문화연구』 제77호,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109-128쪽.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2019.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_____, 「서태후의 기억, 혐오와 조롱의 오리엔탈리즘」, 『근대서지』 제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231-245쪽.

朴珍英, 「家族史の東アジア的想像と飜譯: パール・バックと林語堂の小說の韓國語への飜譯經緯」, 『朝鮮學報』 第239號, 天理: 朝鮮學會, 2016, 1-31쪽.

양아람, 「1960년대 펄 벅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대지』의 작가, 혼혈아의 어머니」, 『대동문화연구』 제11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23-464쪽.

왕캉닝, 『린위탕과 한국: 냉전기 중국 문화 · 지식의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 소

명출판, 2022.
임선애,「서구 작가의 한국 쓰기: 펄 벅의『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한국사상과 문화』제45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81-106쪽.
장왕록 · 한말숙,『대지의 신화: 펄 벅의 인간과 예술』, 신구문화사, 1960.
허정애,「펄 벅과 혼종 우월성:『숨은 꽃』과『새해』에 재현된 '아메라시안'을 중심으로」,『영미어문학』제138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20, 85-110쪽.
피터 콘, 이한음 역,『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郭英劍 편,『塞珍珠評論集』, 桂林: 灕江出版社, 1999.
下地ローレンス吉孝,『'混血'と'日本人': ハーフ · ダブル · ミックスの社會史』, 東京: 青土社, 2018.
鈴木紀子,「'幻の映畵'をめぐって:『大津波』日米合同映畵製作とパール · バック」,『大妻レヴュー』第48號, 東京: 大妻女子大學英文學會, 2015, 39-49쪽.
_____,「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 · バック『大津波』と戰後冷戰期日米文化關係」,『人間生活文化研究』제28號, 東京: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2-96쪽.
Park Jinyoung, "East Asian Unconscious of Translation and World Litera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9 (2),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pp.219-239.

Abstract

Pearl Buck's Imagination of Asian Women and Mixed Descent in Postwar

Park Jin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Pearl Buck's novels were widely translated into Korean and achieved significant popularity in the 1950s. Pearl Buck maintained her focus on the issues of Asian women's interracial marriage and mixed descent. In her first novel to deal with Korean matters, Pearl Buck emphasized patriarchal familism through a binary opposition between East and West. Pearl Buck reiterated her pure-blooded and paternalistic views in her novels about Korean history and the adoption of Amerasian. Pearl Buck's perspective on Ko-

rea was shaped by her focus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war period. On the other hand, in the novel that captured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Asian women and mixed descent, Pearl Buck depicted the independent inner life and psychology of women with great sensitivity. In her novels about Japanese woman's love and marriage, missionary families in India, and the Jewish community in China, Pearl Buck portrayed women who were in control of their lives and destinies. Through challenging issues of women and mixed descent in the face of racial prejudice and social discrimination, Pearl Buck articulated a narrative vision of human relationships founded on equality and democracy. In the 1950s, Korean readers emphathized with Pearl Buck's literary practice of presenting a new era of love and values through women's voice, not with humanism or maternity.

Key words: interracial marriage, mixed descent, paternalism, translation, woman, Amerasian, Asia

논몬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7.
게재확정 / 2024.12.08.